17세기 사천왕상 天王門의 건축형식 展開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Development
of Four-Guardian-Statutes Building-Gate in 17th Century

류 성 룡*

Ryoo, Seong-Lyong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Abstract

This study is basically about four-guardian-statutes-building-gate in 17th Century. In the field of art-history, there are four-guardian-statutes made of clay in order that the statutes are so gigantic and grotesque enough to threaten all the devils.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sure that the similar variation occurred at the four-guardian-statutes-building-gate in 17th centur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nly Da-Po style four-guardian-statutes-building-gates were built in famous four temples separately from 1612 until the Manchu war of 1636. And there are gigantic four-guardian-statutes made of clay in the building. Second, there are Chul-mok Ik-gong style buildings were built in 1660s at Bo-Rim-Sa and Neung-Ga-Sa. The buildings including four-guardian-statutes-building-gate of Song-gwang-sa built in 1636 probably are all similar to earlier Da-Po style four-guardian-statutes-building-gates in the viewpoint of structural type and size of building. Third, it began to build Ik-gong style four-guardian-statutes-building-gates in 1676 at Su-ta-sa.

주제어 : 天王門, 17世紀, 塑造, 多包, 出目翼工

Keywords: Four-Guardian-Statutes Building-Gate, 17 Century, Modeling, Da-Po, Chul-Mok Ik-Gong

1. 서 론

미술사 연구의 성과 중에는 四天王像과 관련된 17세기의 특징적인 시대 현상을 확인한 내용이 있다. 당시 제작된 사천왕상은 나무와 진흙의 제한된 재료만을 사용하면서 그로테스크한 외형과 함께 거대한 규모로 제작함으로써 이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위협적인 느낌을 증폭시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사천왕상 제작은 임진왜란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데 특히 승군이 활약한 사찰에 많이 만들어졌고 대부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서 활약한 팔도도총섭 碧巖 覺性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¹⁾

특히 仁祖代에 조성된 사천왕상은 거의 흙으로 만든 塑造像으로서 특히 1630년경을 전후한 시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17세기말부터 18세기에 접어들게 되면 목조로 바뀌는 경향을 보인다.²⁾

塑造像은 재료적 측면에서 경제성과 대규모 제작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육중한 하중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難點이 있다. 예를 들어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은 소조상의 골격이 되는 중심구조물의 다리 하부가 의자처럼 네 개로 구성되는데 마루의 바닥을 통과하여 지면에 닿도록 만들어져 있고 다리 상부는 직각방향의 부재들이 서로 맞춤되는 방법과 함께 연결부위를 꺾쇠로 보강함으로써 견고한 결구에 집중하는 모습이 되었다.³⁾

이와 같은 塑造사천왕상 제작의 특징을 감안한다면 이

* Corresponding Author : mbdragon@naver.com

1) 조선시대 사천왕상에 대한 대표적 논문으로 魯明信, 「朝鮮後期 四天王像에 대한 考察」, 『미술사학연구』 제202호, 1994. 6, p.97~126 이 있다.

2) 임영애,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의 방위문제와 조성시기」, 『송광사 사천왕상 발굴자료의 종합적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6, p.144

3) 한경순, 「順天 松廣寺 四天王像 制作技術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제30집, 2005, p.97~114의 글과 그림에서 사천왕상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중심구조물의 네 기둥은 마루바닥을 통과하여 지면에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를 안치하고 있는 天王門 건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천왕문의 건축 형식이 사천왕상 塑造像을 제작하고 안치했을 당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 같은 점에 착안하여 17세기에 제작된 사천왕상을 안치하고 있는 천왕문을 고찰함으로써 일단의 시기적 경향이나 특징이 건축적 측면에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사천왕상과 천왕문

2-1. 사천왕상과 천왕문

한국의 사천왕 신앙은 삼국시대 도입된 이래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불법 수호와 국토 수호라는 대의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천왕문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⁴⁾ 사천왕상 조각상은 모두 17곳의 천왕문에 분포하고 있고 탱화는 6곳에 산재되어 있다.⁵⁾ 사천왕상 조각상은 모두 1750년 이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사천왕상 탱화는 모두 1758년 이후에 제작된 것들이다.⁶⁾ 사천왕상 조각상 17곳 중에는 임진왜란 이전에 제작된 2곳과 제작 시기가 미상인 여천 홍국사 사천왕상⁷⁾과 영광 불갑사 사천왕상⁸⁾ 등 2곳이 포함되어 있

4) 건축사 연구 분야에서는 천왕문의 본격적 시작을 조선시대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강근은 「完州 松廣寺의 建築과 17세기의 開創役」, 『강좌미술사』 13, p.109~110에서 사찰 진입부에 일주문, 금강문, 천왕문 등 3문을 배치하는 법식이 17세기에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17세기 재건 사찰의 전란 이후 호국 신앙 분위기와 직결되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대암은 「조선시대 라마계 천왕문의 수용 및 전개에 대하여」, 『건축역사연구』 제16권 6호 통권55호 2007년 12월, p.47에서 천왕문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7세기 초부터라고 하였다.

5) 魯明信, 『강좌 미술사 13호 특집호, 全州 松廣寺』, 1999. p.93에서는 보림사 사천왕상과 직지사 사천왕상을 각각 1539년(중종34년)과 임진왜란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인조연간 4곳, 숙종연간 5곳, 고종연간 1곳, 미상을 5곳으로 보았었다.

6) 사천왕상의 제작연대에 대해서는 魯明信, 「朝鮮後期 四天王像에 대한 考察」, 『미술사학연구』 제202호, 1994. 6, p.103~104의 표와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후 새롭게 확인되거나 수정된 것을 보완하여 <Tab.1>과 같이 정리하였다.

7)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건축사자료 제21호, 한국의고건축』, p.44에서는 <천왕문사천왕상홍교중창기>의 1982년 사천왕상을 창했다는 기록을 통해 최근 작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3.98m의 소조상이라는 점과 천왕문의 공포의 형식을 감안하면 1660~1680년대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8)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한국건축사자료 제14호, 한국의 고건축』, 1992, p.93에서 불갑사 사천왕상(목조 좌상)은 1869년(고종 7년) 전라북도 무장의 폐사된 연기사(煙起寺)에서 옮겨온 것이 전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천왕상 제작 시기와 천왕문 건축 시기가

다. 한편 서울 봉은사 사천왕상(목조 입상, 1746년)은 원래의 천왕문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작시기가 확인된 조각상을 안치하고 있는 천왕문은 칠장사가 마지막이라 할 수 있다.

결국 1515년의 보림사 사천왕상을 제외하면 조선시대 사천왕상 조각상 조성은 대략 17세기의 100여년 동안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고, 사천왕상을 안치하기 위한 천왕문 건축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⁹⁾

Tab.1 Four Guardian Statutes & Portraits in Josun Dynasty

Temple	Period	Type	
		Material	Height
Bo-Rim Sa	1515 ¹⁰⁾	Wood	3.73m
Jik-Ji Sa	16C ¹¹⁾	Clay	4.43m
Bup-Ju Sa	1624	Clay	6.00m
Song-Gwang Sa ¹²⁾ (Sun-Cheon)	1628	Clay	4.03m
Hwa-Em Sa	1632	Clay	3.73m
Song-Gwang Sa (Wan-Ju)	1649	Clay	4.25m
Neung-Ga Sa ¹³⁾	1666	Wood	4.50m
Su-Ta Sa	1676	Clay	2.95m
Sun-Un Sa	1680	Clay	3.26m
Jeok-Chun Sa	1690	Wood	3.80m
Yong-Mun Sa	1702	Wood	2.94m
SSang-Gye Sa	1704	Wood	4.11m
Tong-Do Sa	1724	Wood	4.53m
Chil-Jang Sa	1726	Clay	3.60m
Bong-Eun Sa	1746	Wood	2.30m
Heung-Guk Sa	unknown	Clay	3.98m
Bul-Gap Sa	unknown	Wood	3.45m
Museum of Hong-Ik University	1758	Portrait	
Dae-Dun Sa Chim-Gye Ru	1794	Portrait	
Dae-Dun Sa Cheon-Bul Jeon	1794	Portrait	
British Museum	1796 ~1820	Portrait	
Bum-Eu Sa	1869	Portrait	
Dong-Hwa Sa	1896	Portrait	

전혀 다른 예가 된다.

9) 1746년에 조성된 봉은사 사천왕상이 높이 2.3m로 가장 작은 크기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미 대규모 사천왕상 조상에 대한 경향이 쇠퇴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규모 사천왕상 조성을 대체로 1720년대까지 경향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10) 보림사 사천왕상의 제작시기에 대해서 「寶林寺天王金剛重新功德記」에서 ‘皇明正德乙亥有山人戒之始爲立像’이란 표현 중 乙亥가 己亥로 오독되어 1539년으로 잘못 주장되었기 때문에, 正德년간(1506~1521) 중 乙亥년인 1515년에 造像된 것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1515년 조성으로 보고 있다. (순천대학교박물관, 『地方文化資料叢書第五 迦智山寶林寺』, 1995, p.108)

특히 사천왕상과 천왕문 건축의 조성 시기로 보았을 때 둘 사이의 연관성은 소조불일수록 강하고, 다음으로 목조상, 그리고 탕화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적어진다. 사천왕상이 탕화인 경우에는 대둔사처럼 천왕문이 아니라 침계루와 천불전에 안치된 예도 있고, 심지어 박물관에 소장된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조각상에 비해 이동이 쉽기 때문인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조각상인 경우에는 소조상에 비해 목조상의 이동이 용이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높이가 3.45m인 불갑사 사천왕상은 전북 무장에서 배를 통해 이전된 것이고, 2.30m의 봉은사 사천왕상은 신설된 진여문으로 옮겨져 전시되고 있는 경우다. 따라서 보림사의 경우에도 사천왕상(3.73m)이 1515년에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안치하고 있는 천왕문의 건축 시기가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비교하면 소조상이면서 대규모로 제작된 사천왕상은 이를 안치하고 있는 천왕문 건축과 시대가 일치할 확률이 매우 높다. 소조사천왕상의 경우에는 안정된 자세를 유지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순천 송광사 천왕문이나 홍천 수타사 천왕문에서는 소조상의 뼈대를 마루에 통과시켜 건물과 결속시키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고¹⁴⁾ 건물 상부 가구에 떨어지기 쉬운 천왕상의 신체 일부나 지물을 매달아 하중을 분담하는 방법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소조사천왕상 천왕문의 건축 형식을 상세하게 관찰하고 정리하는 것은 다른 건축물의 시대를 확인할 수 있는 비교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된다.

그러나 천왕문은 16세기 건축으로 보기 어렵다.

11) 다만 直指寺 사천왕상은 『직지사 사적비(直指寺 事蹟碑)』 중 1681년 기록에 따르면 사찰이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어 이후에 다른 건물들과 같이 四門이 새로 건축되었다고 하였고 1741년의 추가 기록에서는 대양문(太陽門), 천왕문(天王門), 금강문(金剛門), 자하문(紫霞門) 등의 山門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直指寺 천왕문과 사천왕상이 임난 이후 17세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12) 송광사에는 순천 조계산 송광사와 완주 종남산 송광사의 2곳이 있다.

13) 1995년 8월초 사천왕문 해체 복원 과정에서 상량문이 발견되어 초창이 1666년(현종 7), 중창은 1824년(순조 24), 3창이 1931년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14) 한편 범주사는 사천왕상을 안치하는데 다른 천왕문과 다른 방식이 관찰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천왕상이 놓이는 바닥 전체를 마루로 만들고 여기에 사천왕상을 안치하게 되는데, 범주사에서는 기둥과 결구되지 않는 우물마루 판을 독립적으로 4개 만든 다음 흙바닥에 바로 설치하고 여기에 각각의 사천왕상 입상을 세워 놓은 방식인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 소조상을 만들 때 목조 바닥에 심을 세우고 여기에 흙을 붙여나가면서 모양을 만드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생각되는데, 육안 관찰에 의한 것이라 앞으로 정확한 확인과 정리가 요구되는 내용이다.

2-2. 15~16세기 도갑사 해탈문과 청평사 회전문

천왕문과 같은 사찰 산문으로서 17세기 이전의 건축 사례로 15세기의 도갑사 해탈문(解脫門)¹⁵⁾과 16세기의 청평사 회전문(回轉門)¹⁶⁾이 남아있다.

도갑사 해탈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정면이 28尺이고 측면이 17尺이다. 정면의 여간 폭은 12尺으로 좌우 측간 8尺보다 넓게 계획하였다.

대들보 4개 모두 중앙에 기둥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여간의 가구와 측면의 가구가 같은 모습이 되었고, 도리방향의 4개 기둥이 3열로 배치되어 6칸의 격자틀을 정연하게 구성하는 모습이 되었다. 모든 기둥과 기둥 사이는 창방으로 맞춤 연결하고 있다.¹⁷⁾

가구는 5梁을 기본 구조로 하고 처마도리¹⁸⁾를 부가한 형식인데, 후대의 일반적인 5량 가구와 달리 長椽과 短椽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된 긴 서까래를 설치하여 마치 3량 가구처럼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¹⁹⁾

공포는 柱心包 · 多包 · 翼工 양식이 혼재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시대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포 건축의 특징으로는 주심에 네갈소로를 실제로 설치하지 않고 線刻하고 있다는 것²⁰⁾과 소위 翹頭形 첨차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²¹⁾ 주심포 건축의 특징으로는 헛첨차의 끝이 아직 새부리 모양이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고 헛첨차 상부에 양갈소로가 배치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익공 건축의 특징으로는 헛첨차와 살미가 간격이 없이 맞닿은 모습인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도갑사 해탈문 내부에는 건축 당시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²²⁾ 높이 1.78m²³⁾의 文殊 · 普賢 童子像

15) 尹武炳, 「道岬寺 解脫門 上樑文」, 『미술사학연구』 제1권 제1호, p.6~7, 1960. 도갑사 해탈문은 남한에 전해지고 있는 사찰 山門 중 가장 오래된 건물로 수리공사 때 여간 종도리 받침장여에서 발견된 상량문을 통해 成化 九年(1473년)에 立柱 上樑한 것이 확인된 바 있다.

16) 결국 본 논문은 17세기까지 측면은 2間 이상이고 정면이 3間인 조선시대 사찰 산문을 대상으로 하는 결과가 되었다.

17) 결과적으로 대보와 직각방향인 창방들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구조가 되었고, 횡력에 취약한 맞배지붕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18) 주심포 건축에서 주심도리 바깥에 설치되는 도리는 처마도리로 부르고, 다포 건축의 경우에는 바깥은 외목도리 안쪽은 내목도리로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본다.

19) 서까래의 수평길이는 4.2m 정도가 된다.

20) 소위 「隱出心料」 형식으로서 15세기 다포건축을 대표하는 특징 중 하나인데, 鳳停寺 大雄殿과 崇禮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1) 류성룡, 「조선전기 다포건축 공포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28 n.07, 2012년 7월, p.157, 표8을 참고하면 교두형 첨차는 같은 15세기 다포 건축인 개심사 대웅전의 첨차 길이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보물 1134호)이 안치되어 있었다.²⁴⁾

청평사 회전문은 明宗 12년(1557년) 普雨가 능인전을 비롯한 여러 전각을 중건할 때 함께 지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²⁵⁾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정면은 19척이고 측면은 10척이다. 정면은 어간에 비해 측간이 매우 좁게 계획되었는데 어간이 11척이고 측간은 4척이다.

측면에서 보면 1칸이지만 내부에서는 2칸이 된다. 측면에는 보 하부에 기둥을 설치하지 않았지만, 어간 좌우 쪽에는 보 하부에 기둥을 설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부 側間에는 좌우 각각 2칸씩 모두 4칸의 공간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回轉門에 사천왕상이 안치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²⁶⁾

어간 좌우 중앙에는 기둥이 있어서 창방으로 연결이 가능하지만 측면 중앙에는 기둥이 없기 때문에 어간 중앙 기둥과 측면의 대보를 연결하는 창방이 설치될 수 없다는 점에서 도갑사 解脫門과 다른 모습이 되었다.

가구는 종도리와 주심도리만 설치하여 가장 단순한 3량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서까래는 수평길이 2,866mm의 한 가지 종류만 사용되었다.

출목이 없고 기둥머리의 헛침차가 새부리모양이라는 점에서 익공식 공포라는데 이견이 없는 건물이다. 그러나 주심도리를 대보가 직접 받지 않고 별도의 운공을 설치한 모습은 16세기 익공 건물의 시대적 특징으로 생각할 수 있다.²⁷⁾

2-3. 17세기 유점사 해탈문과 회전문

17세기 유점사(楡岾寺)는 금강산 유람의 중요한 장소 중 하나였기 때문에 관련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사찰 문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시 유점사는 규모가 큰 사찰로서 많은 건물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가장 위계가 높은 건물인 능인보전에 이

르기 위해 山映樓, 解脫門, 回轉門, 泛鐘樓, 眞如門²⁸⁾을 차례로 지나야 했다.²⁹⁾

楡岾寺已向殿曰能仁寶殿。…… 東有御室及羅漢殿，侍史房，十王殿，大權堂，禪堂，興福寮，駝臥寮，海會堂，涅槃堂，養老房，興盛庵，內香積殿。殿後有啄烏啄井。所謂大權者。爲盧僊也。有塑像。西有大藏殿，慈蔭堂，寂默堂，尋劍堂，掛猿寮，金堂，塵靜寮，擇木寮，圓寂寮，雲翠堂，外香積室。室中有大甌，大釜。南有山映樓，解脫門，回轉門，泛鍾樓，眞如門。

그런데 이들 門과 樓들은 출입 이외에 다른 기능도 있었는데, 山映樓는 수각으로서 行客이 쉴 수 있는 장소, 解脫門은 '大聖壽報德寺'라는 현관을 걸어두는 문, 回轉門은 사천왕상을 안치한 장소, 泛鍾樓는 누 1층에 종을 설치하고 2층에서는 주지가 손님을 맞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었다.³⁰⁾

有刹彌滿一洞。是楡岾也。前爲水閣曰山映樓。歇行客。其次解脫門。門內有大聖壽報德寺。寺內有回轉門。門有四天王。門內有泛鐘樓。最內有能仁寶殿。……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실은 解脫門에 '大聖壽報德寺'의 6글자가 쓰인 榜이 걸려 있었다는 것과 回轉門에 사천왕상을 안치되어 있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解脫門 내부에는 文殊菩薩과 普賢菩薩의 兩像이 안치되어 있었다고 하였다.³¹⁾

… 次解脫門。榜曰大壽聖報德寺六字。將安文殊普賢兩菩薩像云。…

앞서 살펴보았던 도갑사 解脫門 내부에 文殊 동자상과 普賢 동자상의 兩像이 안치되어 있는 모습과 같다.

17세기 초에도 도갑사나 유점사처럼 解脫門 바깥에

22)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23) 도갑사 해탈문의 기둥 높이는 3.26m 이다.

24) 世祖10年 10月 4日 乙未條 를 통해 도갑사의 중창이 세조의 지원 아래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홍운식, 『朝鮮初期 上院寺文殊童子에 대하여』, 『미술사학연구』 No.164, 1984, p.9~22에 의하면 오대산 上院寺에도 1466년(세조12년)에 조성된 文殊童子像(국보221호)이 전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조선 초 세조대의 문수신앙과 관련된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25)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건축사연구자료 제20호, 한국의 고건축』, 1998, p.19

26) 홍성익, 「春川 淸平寺 伽藍配置의 綜合的 檢討」, 『江原史學』 Vol 19, 20, 2004, p.22

27) 앞의 책, p.31

28) 眞如門이 사찰 주불전의 앞마당을 출입하는 문으로 등장하는 기록이 다수 존재하는데, 봉정사 대웅전 경우는 일제 때까지도 존재하고 있었다. 현재는 眞如門이란 현관이 요사채 오른쪽에서 외부로 나가는 일각문에 걸려 있다.

29) 『白軒先生集』, 한국고전종합데이터베이스(<http://db.itkc.or.kr>) 이 때 루와 문을 구별하지 않고 순서대로 쓰고 있는 점을 볼 때, 여기에 언급된 문과 루가 통과라는 기능이 중요한 것임을 생각할 수 있다.

30) 『河陰先生文集』, 한국고전종합데이터베이스(<http://db.itkc.or.kr>). 진여문은 다른 문이나 루와 달리 출입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은 측면간이 없는 형태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일각문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31) 『樂全堂集』, 한국고전종합데이터베이스(<http://db.itkc.or.kr>).

사찰의 이름을 걸고 안쪽에 文殊菩薩과 普賢菩薩을 안치하며, 解脫門을 지나 사찰 안쪽의 回轉門에는 사천왕상을 모시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사실이 당시 모든 상황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사천왕상이 17세기까지도 천왕문이 아닌 다른 산문에 안치되는 경우가 존재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³²⁾ 이 같은 기록은 사천왕상 조각상을 안치하는 천왕문 건축이 17세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주장과 통하는 측면이 있다.

3. 사천왕문 공포양식 분류

17세기 사천왕문을 공포 양식에 따라 시기를 분류하면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에는 多包, 중반에는 出目翼工, 후반에는 無出目翼工이 사용되는 경향이 발견된다.³³⁾

Tab.2 Period and Bracket-sets Type of Four Guardian Statutes Gate

Temple	Period	Type
Song-Gwang Sa (Sun-Cheon)	1612 ³⁴⁾	Da-po
Jik-Ji Sa	c1616	Da-po
Bup-Ju Sa	1624	Da-po
Hwa-Em Sa	1632	Da-po
Song-Gwang Sa (Wan-Ju)	c1633	Chul-Mok Ik-Gong
Bo-Rim Sa	1666	Chul-Mok Ik-Gong
Neung-Ga Sa ³⁵⁾	1666	Chul-Mok Ik-Gong
Su-Ta Sa	1676	Non-Chul-Mok Ik-Gong
Sun-Un Sa	1680	Non-Chul-Mok Ik-Gong
Jeok-Chun Sa	1690	Non-Chul-Mok Ik-Gong
Yong-Mun Sa	1702	Non-Chul-Mok Ik-Gong
SSang-Gye Sa	1704	Chul-Mok Ik-Gong
Tong-Do Sa	1724	Chul-Mok Ik-Gong
Chil-Jang Sa	1726	Chul-Mok Ik-Gong

32) 유점사의 예를 통해서 보면 사찰 산문의 기원이나 유래에 대한 연구에서 건물과 명칭을 구분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특히 형태상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일주문이나 기능상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천왕문의 경우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천왕상이 삼국시대에 들어왔지만 별도의 건물에 따로 안치되는 시기가 다를 수 있고, 천왕문이라는 이름으로 정착된 시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33) 18세기가 되면 사천왕상의 형식과 관계없이 다시 출목익공이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감지되는데 이에 대한 분석 연구는 추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4) 순천 송광사의 경우 1612년에 먼저 천왕문이 건축되었고 이로부터 16년이 지난 1628년에 사천왕상이 제작되어 안치되었다.

35) 1995년 8월초 사천왕문 해체 복원 과정에서 상량문이 발견되어 초창이 1666년(현종 7), 중창은 1824년(순조 24), 3창이 1931년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3-1. 多包 天王門

다포 양식인 천왕문은 순천 송광사, 직지사, 법주사, 화엄사 등 모두 4곳에 현존하는데, 이 중 송광사 천왕문은 1612년³⁶⁾, 법주사 천왕문은 1624년³⁷⁾, 화엄사 천왕문은 1636년 重建³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순천 송광사 천왕문은 건축연대가 분명하기 때문에 17세기 初 다포 맞배지붕인 三間 山門건축을 분석하는데 좋은 예가 된다.³⁹⁾ 주간포는 어간에 2구, 측간에 1구가 설치되었는데, 포간격이 모두 4尺으로 일정한 모습이다.⁴⁰⁾ 측면은 2고주 5량 가구이고 내부는 심고주 5량 가구로서 어간의 가구와 측면의 가구를 결속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직지사 천왕문은 앞뒤 側間에만 주간포를 설치하였고 어간에는 주간포 대신 화반을 설치한 점이 독특하다. 측간의 주간포는 주간거리 12尺의 중앙에 하나만 설치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포건축과 달리 포간거리가 매우 넓어서 예외적인 모습이 되었다.

그런데 직지사 천왕문에서는 시대를 판정할 수 있는 건축적 기준으로 按草栱을 발견할 수 있다. 직지사 안초공 형식은 평방까지 감싸는 모습이 아니라 평방을 뺀 기둥과 창방만 결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1616년(광해군 8년) 건축의 창경궁의 명정전, 명정문, 그리고 흥화문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직지사 천왕문을 17세기 초반 건축으로 판단한다면 임난 직후인 1600년대 초반 유력 사찰에서 다포 맞배지붕의 천왕문이 집중적으로 건축되는 현상을 확인하게 된다.⁴¹⁾

법주사 천왕문은 현존하는 다른 천왕문이 정면 3간인 것과 달리 유일하게 5間인 건축이고, 바닥면적이 다른 건물의 2배 이상일 만큼 대규모 건축이다. 대규모 건물

36) 문화재청, 『송광사중요목조건축물 정밀실측보고서(상)』, 2007, p.207 “曹溪山松廣寺四天王殿丁酉倭火燒亡壬子年分重創上梁文”

37) 국립문화재연구소, 『법주사 팔상전 수리공사보고서』, 1998, p.78 천왕문이 18세기초 다시 중건되었고 19세기에 중수된 것으로 보았다.

38) 정병삼·김봉렬·소재구, 『화엄사』, 대원사, 2000, p.94

39) 정밀실측조사시 소로의 크기를 확인하고 출목간격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보고서 도면상에서는 출목간격 270mm, 장여두께 120mm, 장여 내목간격 150mm로 확인된다.

40) 이처럼 포간격을 4척으로 일정하게 계획한 다포 맞배지붕 건축에는 15세기의 개심사 대웅전과 귀포 형식상 2단계에 속하는 장곡사 하대웅전이 있다. 장곡사 하대웅전은 어간에 2, 측간에 1의 주간포를 설치한 것도 같고 정면 너비도 28尺으로 같다. 류성룡, 「조선 전기 다포건축 공포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8권 7호(통권285호), 2012년 7월, p.155 그림3 참조

41) 이 같은 판단은 앞서 언급한 『직지사 사적비(直指寺 事蹟碑)』 내용을 근거로 한 시대 추정과 일치하는 것이다.

인 만큼 가구 구조 역시 다른 천왕문이 5량을 기본으로 하는 것과 달리 역시 유일하게 7량가로 되었다.

공포 역시 다른 다포 천왕문들에서 外2출목, 內2출목인 것과 달리 법주사 천왕문은 내부가 3출목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공포 배치에 있어서도 특이한 점을 보이는데, 주간포를 정면에서는 御間에만 설치하고 側間과 夾間에는 설치하지 않았다. 그런데 측면에서는 앞쪽과 뒤쪽 두 곳 모두 주간포를 설치하였다. 주간포는 정면에서 12尺 주간의 중간에 하나만 설치하였고, 측면에서는 15척 주간의 중간에 하나씩만 설치하여 침차도 길어지고 포벽도 넓어지게 되었다. 포간 거리가 넓다는 점이나 주간포가 모든 간에 설치되지 않고 일부에만 설치된다는 점에서 직지사 천왕문과 유사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법주사 천왕문은 귀포가 설치된 유일한 사례가 된다.⁴²⁾

화엄사 천왕문은 다포 천왕문 4곳 중 가장 나중에 건축되었기 때문에 건축 경향의 하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주간포 배치는 柱間이 모두 10척인 어간과 측간에 하나씩 설치하였기 때문에 포간격 역시 5尺으로 일정한 모습이 되었다. 포간격이 일정하다는 점에서 순천 송광사 천왕문과 맥을 같이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화엄사 천왕문은 초제공 살미와 이제공 살미 위에 연화가 조각되어 앞선 건축들보다 장식적인 모습인 것과 출목간격의 관계에서 소로 크기보다 침차간격이 좁아지는 현상이 분명하게 확인된다는 점에서 다른 천왕문들과 차이가 있다.⁴³⁾

다포 천왕문을 주간거리와 포간거리의 관점에서 보면, 순천 송광사 천왕문과 화엄사 천왕문은 다포 건축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직지사 천왕문과 법주사 천왕문은 주간포를 설치한 곳과 설치하지 않은 곳이 혼재한다는 점에서 다포 유사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임진왜란 이후 대략 1620년대와 병자호란 발생 직전인 1636년까지 특정 시기에 유력사찰⁴⁴⁾에서는 다

포 또는 多包 類似양식으로 천왕문을 만들고 건물 내부에 소조상을 대규모로 조성하여 안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3 Da-po Bracket-sets Style

Temple	Bracket-Sets
Song-Gwang Sa in Sun-Cheon
Jik-Ji Sa
Bup-Ju Sa
Hwa-Em Sa

직지사 대웅전은 어간이 좁고 측간이 더 넓은데 이는 출목익공인 능가사(楞伽寺) 천왕문과 같은 것으로 정면에서의 御間과 側間の 주간거리까지 같은 모습이다. 또 법주사 천왕문은 측간의 7척이 다포 건축의 포간거리로 예외적이라 할 수 있고⁴⁵⁾, 7척, 9척, 12척의 주간거리는

과 관련된 의미에서 ‘유력사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순천 조계산 송광사 천왕문은 다포 건축이고, 완주 종남산 송광사 천왕문은 출목익공 건축이다.

45) 조선전기 다포 건축에서 포간거리는 대체로 4尺~5尺 범위에 있고, 바닥면적이 216尺²에 불과한 石南寺 靈山殿만 포간거리가 유일하게 4尺 이하였다. 법주사 천왕문의 측간에 주간포를 하나 설치한다면 포간거리가 3.5척이 되는데, 참고로 법주사 천왕문의 바닥면

42) 맞배지붕이지만 귀포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팔작지붕이 후대에 맞배지붕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법주사 천왕문에는 국내 最大이자 最高인 塑造로 제작된 6m 사천왕상 立像이 안치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천왕상이 파손될 수도 있는 부담을 안고 지붕을 변경하는 공사를 감행했을 것인가 하는 여부에 대해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면뿐만 아니라 측면에도 주간포가 있는 다포 건물에서는 맞배지붕이더라도 모서리에 귀포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43) 따라서 1630년대 건축에서 공포의 형태적 변화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44) 완주 종남산 『松廣寺開創碑』에는 보조국사의 유지를 계승하는 의미에서 조계산 송광사와 같은 이름을 썼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

포간거리를 일정하게 만들기 어려운 배열이며, 어간의 포간거리를 6척으로 예외적으로 길게 만든 것은 처음부터 다포를 면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근거가 된다.⁴⁶⁾

3-2. 出目翼工 天王門

17세기 천왕문 중 출목익공인 경우로 완주 송광사 천왕문, 고흥 능가사와 함께 장흥 보림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들 천왕문에 안치되어 있는 사천왕상의 조성연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건축물의 경우는 후대에 변경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⁴⁷⁾ 보림사 천왕문의 경우도 현재의 건축을 16세기 건축으로 보기에 무리한 점이 많고 오히려 완주 송광사 천왕문보다 후대로 보이는 모습이 관찰된다.

Tab.4 Four Guardian Statutes Gate of Ik-Gong Bracket-sets Style

Temple	Statues	Period	Chul-Mok	Non-Chul-Mok
Song-Gwang Sa in Wan-Ju	Clay	1649	1 Chu-lMok	
	Gate	1636	2Ik-Gong	
Bo-Rim Sa	Wood	1515	1 Chu-Mok 2Ik-Gong	
	Gate	1666 1774		
Neung-Ga Sa	Wood	1666	2 Chu-lMok 3Ik-Gong	
	Gate	1824		
Su-Ta Sa	Clay	1676		1 Ik-Gong
Seon-Un Sa	Clay	1680		2 Ik-Gong
Jeok-Cheon Sa	Wood	1690		1 Ik-Gong
Yong-Mun Sa	Wood	1702		1 Ik-Gong
SSang-Gye Sa	Wood	1704	1 Chu-lMok 2Ik-Gong	
Tong-Do Sa	Wood	1724	1 Chu-lMok 3Ik-Gong	
Chil-Jang Sa	Clay	1726	1 Chul-Mok 2Ik-Gong	
Heung-Guk Sa	Clay	Unkn own	1 Chul-Mok 2Ik-Gong	
Bul-Gap Sa	Wood	? 1870	Chul-Mok Ik-Gong	

적은 1,320尺² 이다.

46) 참고로 같은 경내에 있는 법주사 5층 팔상전은 맨 위층만 다포 형식이다.

47) 이강근, 「完州 松廣寺의 建築과 17세기의 開創役」, 강좌 미술사 13호 특집호, 1999, p.114.에서 중남산 송광사 천왕문의 현재 모습은 17세기 당시 원형보다 19세기 무렵의 특징을 지닌 것으로 보았다.

익공 건물의 정리와 분석을 위해 완주 송광사 천왕문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데, 건축과 造像에 관련된 기록이 가장 정확하고 塑造 사천왕상의 특성상 건축물과 상대적으로 긴밀하기 때문이다.

Tab.5 Chul-Mok Ik-Gong Bracket-sets Style

Temple	Bracket-Sets
Song-Gwang Sa in Wan-Ju (1636)
Bo-Rim Sa (?)
Neung-Ga Sa (?)
SSang-Gye Sa (1704)
Chil-Jang Sa (1726)
Heung-Guk Sa (17C ?)

완주 송광사 천왕문에 사천왕상을 안치한 것은 1649년 (인조27년)의 일로서, 건물은 적어도 1636년 이전에 이미 세워져 있었다.⁴⁸⁾ 건물이 먼저 마련되고 사천왕상이 나

중에 안치되었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보았던 다포 양식의 순천 송광사 천왕문이나 법주사 천왕문과 같은 예가 된다.

한편 완주 송광사 천왕문은 1출목2익공 건물로 초익공은 앙서, 이익공은 수서, 보뿔목은 사절된 단순한 모습이라는 점에서 형태상 가장 앞선 시기로 볼 수 있다.

목조 사천왕상의 보림사 천왕문 역시 1출목2익공이지만 초익공에는 앙서와 상부 蓮花, 이익공에는 수서와 하부 蓮峯, 보뿔목에는 鳳頭를 조각하여 장식의 모습이 되었다. 1666년에 重修되었고 1774년에 重創되었다고 하는데,⁴⁹⁾ 중수와 중창의 의미 차이를 감안했을 때 1774년에 중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능가사 천왕문은 2출목3익공⁵⁰⁾ 건물로서, 초익공은 앙서와 상부의 蓮花, 이익공은 앙서와 상부의 蓮峯, 삼익공은 수서로 장식하여 규칙성 있는 구성이다. 능가사 천왕문의 건축시기와 관련하여 해체 보수시 발견된 상량문에서 1666년(현종7년) 初創과 1824년(순조 24년) 重創 내용이 있기 때문에⁵¹⁾ 범위를 좁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주목되는 점은 삼익공 위에 보뿔목을 두지 않고 계공 형식의 살미를 삼입한 다음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길이의 대들보를 엮는 다포 형식의 공포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⁵²⁾

쌍계사 천왕문은 17세기가 막 지난 1704년(숙종30년)에 건축되었다고 하는데⁵³⁾, 1출목2익공 건물로 초익공에는 수서와 상부의 蓮花, 이익공은 수서, 보뿔목은 비교적 단순한 모습을 띄고 있다.

이상 출목익공 건물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완주 송광사 천왕문이 가장 오래된 건축일 가능성이 높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연대미상의 여천 홍국사 천왕문의 경우에 공포 형태가 완주 송광사 천왕문과 유사한데 대규모 소조 사천왕상을 안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600년대 중반 건축일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8) 이강근, 앞의 논문, p.113 에서 언급한 것처럼 1636년 세워진 『松廣寺開創碑』에는 天王殿을 呂人이 조성했다는 내용이 있다.

49) 순천대학교박물관, 『迦智山 寶林寺 정밀지표조사』, 1995, p.111 ~117

50) 1출목2익공 상태에서 2출목이 되면 보방향 살미가 1단 늘어나기 때문에 3익공이 된다. 만약 3출목이 된다면 4익공이 되겠지만 필자의 경우에 아직 이런 예를 관찰한 바 없다.

51)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52) 이익공 출목익공이 다포 건축의 상세를 채택하고 있다는 증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53)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3-3. 無出目 翼工 天王門

무출목 익공의 천왕문은 홍천 壽陀寺, 고창 禪雲寺, 청도 碩川寺와 남해 龍門寺 등으로 17세기 후반에 집중된다.

무출목 익공의 천왕문 건축은 측면 가구가 단순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대들보의 중간에만 기둥을 설치하는 심주 형식이 되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수타사 천왕문은 연구 대상 건축 중 유일하게 3량의 가장 단순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내부에는 1676년 제작된 소조 사천왕상을 안치하고 있는데, 높이가 3m를 넘지 않은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제작되었다. 한편 1704년에 건축된 쌍계사 천왕문은 출목이 있는 익공이지만 측면 가구에서 2高柱 5량을 채택하지 않고 心柱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수타사 천왕문의 3량 가구와 더불어 천왕문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시대적 정황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생각된다.

Tab.6 Ik-Gong Bracket-sets Style

Temple	Bracket-Sets
Su-Ta Sa
Seon-Un Sa
Jeok-Cheon Sa
Yong-Mun Sa

4. 사천왕문 건축형식 고찰

4-1. 평면 분석

천왕문 건축의 평면을 고찰하는 것은 계획 당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평면 분석을 통해 가장 주목되는 건물은 법주사 천왕문으로 다른 건물들이 정면 3칸인 것과 달리 5칸으로 되어 있다.⁵⁴⁾ 측면 길이에서도 다른 천왕문들이 16尺~22尺의 범위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법주사 천왕문은 30尺으로 매우 길게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바닥면적에서도 다른 건물들의 2배 이상이 되는 최대 건물이 되었다.

Tab.7 Area of Four-Guardian-Statutes Building-Gates
(unit : chuk²)

15~16C	Da-Po	Chul-Mok Ik-Gong	Non- Chul-Mok Ik-Gong
	Early 17C	Middle 17C	Late 17C
476 Do-Gap Sa	588 Song-Gwang Sa in SunCheon	770 Bo-Rim Sa	496 Su-Ta Sa
190 Chung -Pyeong Sa	624 Jik-Ji Sa	720 Song-Gwang Sa in WanJu	540 Seon-Un Sa
	1,320 Bub-Ju-Sa	680 Neung-Ga Sa	570 Jeok-Chun Sa
	630 Hwa-Eum Sa	660 SSang-Gye Sa	

천왕문 바닥면적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朝鮮前期 도갑사 해탈문이나 청평사 회전문과 비교하면 임난 이후 천왕문의 바닥 면적이 큰 것을 <Tab.2>, <Tab.7>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둘째, 예측이 가능한 결과로 익공을 채택한 경우보다 다포 또는 출목익공을 채택한 경우가 바닥 면적이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출목익공을 채택한 경우와 다포를 채택한 경우에는 바닥 면적의 크기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오직 법주사의 경우에만 다른 천왕문의 면적보다 2배가 될 만큼 규모가 크다는 것은 법주사 건축의 독특함 중 하나가 된다.

넷째, 기둥배치에서 외부 측면과 어간의 모습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朝鮮初 도갑사 해탈문과 법주사 천왕문(多包) 그리고 선운사 천왕문(익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주사 천왕문은 다른 건물들에 비교하여 규모가 대단히 큰 건축이고 선운사 천왕문은 유일한 重層 건축이라는 점에서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결구가 중요하게 여겨졌음을 예상할 수 있다.

후자처럼 외부 측면과 어간 양측 모습이 다르다면 기둥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천 송광사 천왕문을 제외하면 다른 천왕문에서는 출입에 이용되는 어간에서 좌우 대들보 아래에 기둥을 설치하지 않았다. <Tab.2>를 통해 천왕문 측면 길이가 16척~22尺인 범위에 있다면 중간에 기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순천 송광사 천왕문 역시 측면 길이가 21척이고 폭 420mm, 높이 450mm의 대보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굳이 기둥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형식이다. 더불어 건물 측면에서 약간 안쪽으로 도리 형태 부재를 앞뒤 공포대에 걸쳐놓아 대보와 평행하게 설치한 다음, 이것과 대들보 사이를 기둥 위치에서 직각 방향으로 부재가 연결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결구 모습이 사천왕상의 안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보강을 위한 것인지 추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간 측면의 내부 心柱가 측면 기둥과 위치가 일치하지 않은 모습은 청평사 회전문에서도 확인되는데 산문의 내부 공간을 분할하기 위한 시기적인 특징일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⁵⁵⁾

4-2. 입면 분석

천왕문 건물의 높이를 <Tab.8>에서 보면 多包건축의 천왕문 네 곳은 모두 8m가 넘는데, 출목익공이나 익공건물들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무출목 익공의 선운사 천왕문이 8.05m로서 8m가 넘지만, 이 경우는 重層 건물이라서 예외적이다.

출목익공 건물 중에는 능가사 천왕문이 8.48m로 높은데, 특별히 기둥을 길게 사용하고 있고 출목익공 천왕문 중에서 유일한 2출목 건물이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出目の 유무 또는 출목 수의 많고 적음이 건물 높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다포나 출목익공처럼 出目이 있는 공포 양식을 채택한 천왕문의 경우에는 건물의 기

54) 『金山寺事蹟』에는 금산사에도 5間 규모의 천왕문이 있다고 하였다.

55) 각주 21 참조. 한편 건물의 규모가 크지 않은 1473년 도갑사 해탈문, 1557년 청평사 회전문, 그리고 다포 천왕문 중 가장 작고 가장 이른 시기(1609년)에 건축된 순천 송광사 천왕문에서도 심주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 높이가 사천왕상 보다 낮은 모습이다. 이와 비교할 때 출목이 없는 익공 양식을 채택한 천왕문의 경우에는 건물의 기둥 높이가 사천왕상보다 높게 되어 있다. 출목이 없는 경우에는 대들보 하부면의 높이가 기둥과 비슷하기 때문에 사천왕상을 안정적으로 안치하기 위해서는 기둥 높이를 기준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 출목이 있는 건물에서는 대들보의 하부면이 기둥보다 높은 위치에서 형성된다.

Tab.8 Heights of Four-Guardian-Statutes Building Gates

Temple	Statutes Height	Column Height	Building Height ⁵⁶⁾	Bracket Type
Do-Gap-Sa	1.78m	3.2m	6.92m	JuSimPo
ChungPyeong-Sa		3.0m	5.38m	Ik-Gong
Bo-Rim-Sa	3.73m	> 3.0m	7.41m	Chul-Mok
Song-Kwang-Sa	4.03m	> 3.2m	8.28m	Da-Po
Bub-Ju-Sa	6.00m	> 4.3m	10.10m ⁵⁷⁾	Da-Po
Jik-Ji-Sa	4.43m	> 4.3m	9.15m	Da-Po
Hwa-Eum-Sa	3.73m	> 3.3m	8.52m	Da-Po
Song-Gwang-Sa	4.25m	> 3.3m	7.71m	Chul-Mok
Neung-Ga-Sa	4.50m	> 3.7m	8.48m	Chul-Mok
Su-Ta-Sa	2.95m	< 3.1m	5.90m	Ik-Gong
Seon-Un-Sa	3.26m	< 4.5m ⁵⁸⁾	8.05m	Ik-Gong
Jeok-Cheon-Sa	3.80m	< 4.0m	7.43m	Ik-Gong
Yong-Mun-Sa	2.94m	?	?	Ik-Gong
SSang-Gye-Sa	4.11m	> 3.5m	7.49m	Chul-Mok

한편 塑造像의 높이와 건물 높이의 상관성과 관련한 문제에서 건축과 조상의 선후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순천 송광사, 범주사, 완주 송광사 천왕문 등은 건축물이 먼저 완공되고 나중에 塑造 사천왕상이 제작된 것이 확인된 사례들이다. 이 경우 사천왕상의 높이와 크기는 천왕문 건축에 의해 결정된 것이고⁵⁹⁾, 기존의 내부 공간에 맞추어 造像 계획이 세워진 것이다. 건물 높이를 조상 계획과 건축 계획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을 사례를 배제할 수 없지만, 대규모 塑造像을 건물 안에 안치하는 것이 처음일 당시에는 시행착오가 많았을 것이라는 점은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사천왕상을 설치하는 순서는 시공 방법에도 영향

56) 건물높이는 기단 상면을 기준으로 하였다.

57) 法住寺 천왕문의 건물 높이는 배병선, 『다포계 맞배집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3, p.315 에서 발췌한 입면에 실측한 기둥 높이 4.3m를 대입하여 구한 것으로서, 대체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수치로서 의미를 갖는다.

58) 1층과 2층 기둥을 더한 높이로, 1층 기둥은 3m이다.

59) 순천 松廣寺 사천왕상은 높이가 4.03m 이다.

을 주게 된다. 塑造像 설치의 특징 중 像을 지탱하는 내부의 목재 골격과 건물 마루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순천 송광사의 사천왕상은 塑造像 안쪽의 목재 골격이 사각형 탁자 모양인데, 탁자의 네 모서리가 마루바닥을 통과하여 지면에 닿도록 하였다. 이는 소조상의 안정된 상태를 위하여 사용한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은 건물 측면 기둥에 기대고 있는 구조를 띄고 있고⁶⁰⁾, 사천왕상의 일부가 건물 측면 벽에 맞붙은 모습으로 제작되어 있었다.⁶¹⁾

홍천 수타사 사천왕문의 소조 사천왕상 경우에도 높이

Fig.1 Four Guardian Statues Under the Floor of Su-Ta Sa

는 2.95m로 소조 사천왕상 중 가장 작은 규모이지만 역시 목조 골격의 기둥이 마루바닥을 통과하여 지면에 직접 닿게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⁶²⁾

천왕문의 측면과 관련하여 지붕은 예외 없이 모두 맞배지붕⁶³⁾이기 때문에 측벽을 보호하기 위한 풍판이 모두 설치되어 있다.

4-3. 가구 분석

천왕문 가구는 3량을 기본으로 한 것, 5량을 기본으로 한 것, 7량을 기본으로 한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조선초 도감사 해탈문은 5량을 기본으로 하면서 外出目에 처마도리가 있는 가구이고, 조선전기 청평사 회전문은 3량 가구이다.

천왕문 가구 중 3량인 경우는 수타사 천왕문이 유일하고 7량인 경우는 범주사 천왕문이 유일하다. 따라서 천왕문은 정면은 3間으로 하면서 가구는 5량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60) 한경순, 「順天 松廣寺 四天王像 制作技術에 관한 研究」, 『송광사 사천왕상 발굴자료의 종합적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6

61) 노명신, 「松廣寺 四天王像에 대한 고찰」, 『강좌 미술사 13호 특집호』, 1999, p.96. 각주17) 참조

62) 그런데 목조 사천왕상의 경우에도 배면 쪽에 목재를 부가하여 안정시키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일부 관찰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사천왕상 재료에 따른 특징인지 아니면 재료와 관계없이 안정된 자세를 유지시키기 위한 공통점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63) 國立文化財研究所, 『法住寺 捌相殿 修理工事報告書』, 1998, p.78 에는 法住寺 천왕문의 지붕이 원래 팔작지붕이었는데 후대에 맞배지붕으로 바뀌었을지 모른다는 언급이 있는데, 이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Fig.2 Purlin & Rafters of Four-Guardian-Statutes Building-Gate (unit ; mm)

Tab.9 Structure Types of Gates

	Early Josun	Early17C	Middle17C	Late17C
Column at Side Elevation		2 long Columns	2 long Columns	1 center Column
3 Ryang	Cheong-Pyeong-Sa			Su-Ta-Sa
5 Ryang	Do-Gap-Sa	Song-Kwang-Sa in Sun-Cheon	Song-Gwang-Sa in Wa-Ju	Seon-Un-Sa
		Jik-Ji-Sa	Bo-Rim-Sa	Jeok-Cheon-Sa
		Hwa-Eum-Sa	Neung-Ga-Sa	Yong-Mun-Sa
7 Ryang		Bub-Ju-Sa		

3량 가구는 한 종류의 서까래만으로 지붕이 구성되고 5량 가구는 장연과 단연의 두 가지 종류 서까래로 지붕이 구성되는데⁶⁴⁾, 법주사 천왕문은 7량임에도 불구하고 長椽과 短椽의 두 가지 서까래를 이용하여 지붕을 구성하고 있다.

처마 깊이를 늘리기 위해 서까래 끝에 사용하는 부연의 有無를 <Fig.2>에서 보면, 다포 건물은 부연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른 양식의 건물은 부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다포 건축인 순천 송광사, 직지사, 화엄사 천왕문은 겹처마로 구성하였다.⁶⁵⁾ 다포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은 모두 홑처마인데, 다만 선운사 천왕문이 유일한 예외로 익공 건물이면서 부연을 달아 겹처마를 만들고 있다. 이는 重層 건물인데다가 장연의 길이가 짧아서 1층 하부의 빗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건물 정면의 기둥 하부에 장초석을 사용한 사실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서까래 길이를 <Fig.2>에서 확인해 보면, 17세기 천왕문에서는 장연과 단연의 길이가 공포양식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한 범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⁶⁶⁾ 단연은 1000mm(3.3척 내외)~1575mm(5.2척 내외), 장연의 길이는 2700mm(9척 내외)~4060mm(13척 내외)에 분포하

64) 조선초 건축인 道岬寺 解脫門은 5량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3량 가구처럼 한 가지 종류의 서까래를 사용하여 지붕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사례가 된다.

65) 건물의 규모가 가장 큰 法住寺 천왕문이 홑처마인 점은 특이하다.

66) 1473년 道岬寺 해탈문의 서까래는 14尺으로 가장 길게 되어 있는데, 중도리가 중도리와 주심도리의 중간에 있는 도리 배치 모습에서 고려시대 주심포 건축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다.

고 있는데, 장연의 경우가 보다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길이가 발견되었고 3310~3400mm(11尺 내외) 정도가 주된 치수임을 알 수 있다.⁶⁷⁾

Tab.10 Length of Rafters (Unit ; mm)

Style	Temple	Rafter	
		higher	lower
Early Josun	Do-Gap-Sa	4,201	
	ChungPyeong-Sa	2,866	
Da-Po	Song-Kwang-Sa	1575	3390
	Jik-Ji-Sa	1175	3400
	Hwa-Eum-Sa	1080	3750
Chul-Mok Ik-Gong	Bo-Rim-Sa	1500	3360
	Song-Gwang-Sa	1395	3360
	Neung-Ga-Sa	1100	4060
Ik-Gong	SSang-Gye-Sa	1250	3400
	Su-Ta-Sa	3975	
	Seon-Un-Sa	1350	2700
	Jeok-Cheon-Sa	1000	3310

5. 맺음말

미술사 분야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17세기 천왕문이라는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건축유형을 고찰한 결과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천왕문 건축 역시 사천왕상과 마찬가지로 시대와 관련된 특정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용도가 같고, 규모가 비슷하며, 맞배지붕으로 지붕모양이 같은 천왕문을 비교적 짧은 기간인 100여년에 집중하여 관찰함으로써 건축 형식들 사이의 상관 관계를 관찰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첫째, 사천왕상과 관련된 17세기의 시대적 경향과 비교하면 건축에서는 더 짧은 기간에 다양한 특정 현상이 확인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1610년경부터 1636년 병자호란 발발 직전까지 건축된 직지사 천왕문, 순천 송광사 천왕문, 법주사 천왕문, 화엄사 천왕문 등은 내부에 塑造 사천왕상을 안치하고 있으면서 모두 多包 또는 多包 유사 형식으로 건축되었다. 이 중 직지사 천왕문은 『直指寺事蹟碑』의 내용과 안초공(按草拱)이라는 건축 상세를 따져볼 때, 1610년(송광사 천왕문)에서 1636년(화엄사 천왕문) 사이에 건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천왕상의 조성 연대에 대해서도 다시 고찰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순천 송광사를 기준으로 삼아 이룩된 완주 송광사에서

67) 그렇지만 서까래의 경우가 수리와 보수공사로 인해 가장 변형이 잦은 부분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내용을 넘어서는 수준의 분석에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천왕문은 출목익공으로 건축되기 시작했다. 출목익공의 경우에는 능가사 천왕문, 보림사 천왕문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천왕문은 측면을 2고주 5량으로 하고 어간은 5량을 통간으로 하였다. 특히 2고주 5량인 가구는 앞선 다포 건축의 가구와 같은 것으로서 보림사 천왕문이 중수되는 시기와 능가사 천왕문이 初創되는 시기가 1666년으로 일치하고 완주 송광사 천왕문까지 모두 인접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후에 무출목 익공의 단순한 형태를 채택한 소규모 천왕문들도 건축되는데 수타사 천왕문, 선운사 천왕문, 적천사 천왕문, 용문사 천왕문 등이 있다. 이 중에는 수타사의 경우처럼 유일하게 3량 구조인 예도 있고, 나머지 천왕문들 역시 앞선 시기와 비교하면 2고주가 아닌 심고주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 역시 건물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나타나는 변화이다.

둘째, 三間 山門에 나타나는 17세기 건축 형식의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朝鮮前期의 해탈문이나 회전문과 비교하면 17세기 초반 천왕문은 건물 규모가 커지고 내부 기둥은 생략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17세기 중반을 지나 후반이 되면 다시 작아지는 추세가 되고 단순한 형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건축 형식이나 규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면을 3間, 가구는 5량, 그리고 맞배지붕으로 하는 것은 대체로 일관된 모습이였다. 간수와 도리수, 지붕모습이 정해진 상태에서 다포와 출목익공의 채택 여부는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고, 이와 비교할 때 출목의 유무가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처마를 보면 다포 형식에서는 겹처마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익공 형식에서는 출목 여부와 관계없이 홑처마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건물의 전체 높이로 본다면 다포와 출목익공의 경우가 무출목익공보다 높지만 기둥 높이만 따지면 무출목익공의 경우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목이 없는 공포는 대들보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높은 기둥을 사용하여 내부 높이를 해결한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하면 조선 전기에는 해탈문에 금강역사상과 문수보현보살을 모시고 회전문에 사천왕상을 모시는 경우가 특이하지 않았지만, 임진왜란 이후 1610년경부터 병자호란 직전 사이에는 유력 사찰에서 대규모 소조상 사천왕상을 안치하기 위해 천왕문을 다포로 건축했었다. 이후 병자호란이 지난 직후인 완주 송광사 천왕문부터는 출목

익공 양식이 사용되었고 다시 17세기 후반부터는 사천왕상의 재료와 관계없이 소규모 천왕문을 무출목 익공으로 만들면서 단순하고 소박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 17세기 사천왕문은 100여년 동안에 초반, 중반, 후반의 3단계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사천왕상과 천왕문이라는 주제는 건축과 미술이라는 서로 다른 분야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과 17세기를 특징짓는 건축연구의 주제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상세하게 검토되어야 할 내용과 수준 높은 연구를 위한 방향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사천왕상과 천왕문의 결속 방법에 대한 조사는 가능한 한 상세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17세기 제작된 마루의 모습을 확인할 수 귀중한 자료일 가능성이 있고, 사천왕상의 재료와 천왕문 건축과의 관련성 또는 더 나아가 시대의 특수 상황이 건축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수준 높은 연구에 필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References

1.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 Survey Report of Bell Tower, Song-Gwang Sa, Wan Ju』, 2000
2.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 Survey Report of Hae-Tal Mun, Do-Gap Sa』, 2005
3.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 Detail Survey on Wooden Framed Buildings, Song-Gwang Sa』, 2007
4.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 Detailed Survey of Dae-Woong Jeon, Jik-Ji Sa, Gim-Cheon』, 2011. Roh, Myung-Sin, 「A Study on the Four-guardian Statutes in Late Cho-Sun Dynasty」, Journal of Art-History(美術史學研究), No202, June, 1994
5. Han, Kyeong-Sun, 「A Study on the Technological Processes of Four-Guardian Statues at the Song-Gwang Sa, Sun-Cheon」, Journal of Bibliography Society(書誌學研究), Vol30, 2005
6. Hong, Sung-Ik 「A Study on the Site Plan of Cheong-Pyeong Sa, Chun-Cheon」, Gang-Won Sa-Hak(江原史學), Vol 19-20, 2004
7. Hong, Yun-Sik, 「A Study on Munsudongja Buddha Statue of Sang-Won Sa in Early Cho-sun Dynasty」, Journal of Art-History(美術史學研究), No.164, 1984

8. Jung, Byeong-Sam· Kim, Bong-Ryeol· So, Jae-Gu,
『Hwa-Eum Sa』, Seoul ; Dae-Won Publishing
Company, 2000
9. Lee, Kang-Geun,, 「The 1st Construction of
Song-Gwang Sa Buildings in 17th Century」, The
Art History Journal. No. 13. June, 1999.
10.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No 14, Bul-Gap
Sa Dae-Woong Jeon』, 1992
11.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No 20,
Chung-Pyeong Sa Hwe-Jeon Mun』, 1998
12.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No 21, Heung-Guk
Sa Dae-Woong Jeon』, 1999
13.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
Preservation Treatment Report of Pal-Sang Jeon,
Bup-Ju Sa』, 1998
14. Ryoo, Seong-Lyong,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Designing Da-Po Bracket Sets in Early Chosun
Dynasty」,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28 No.7, 2012
15.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Museum, 『A
Archaeological Survey of Bo-Rim Sa, Ga-Ji San』, 1995
16. Yi, Dae-Am,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the Lamaist Gateway of Lokapālas during the Josŏn
Dynasty」,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Vol.16,
No.6, 1990
17. Yim, Young-Ae, 「Direction and the Period of the
Four-guardian Clay Statutes in Song-Gwang Sa」,
『A Study on the Four Guardian Statues and Data
Found at the Song-Gwang Sa, Suncheon』, Seoul :
Asia Cultural Company, 2006
18. Yoon ,Mu-Byeong, 「Sang-Ryang-Mun of Do-Gap
Sa」, Journal of Art-History(美術史學研究), Vol1,
No1, 1960
19. 『Geum-San Sa, Sa-Jeok(金山寺事蹟)』
20. 『Bo-Rim Sa, Jung-Chang-Gi(寶林寺重創記)』
21. 『Jik-Ji Sa, Sa-Jeok-Gi(直指寺 事蹟碑)』
22. <http://db.itkc.or.kr>

접수(2012. 8. 15)

수정(1차: 2012. 10. 10, 2차: 2012. 10. 30)

게재확정(2012. 10. 31)